

2022학년도 사학과 추계 정기답사

충청남도 일대



답사일정

1일차 공산성,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정림사지

2일차 미륵사지,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왕릉원, 부소산성

3일차 보원사지, 마애여래삼존불



7세기 무왕대에 창건된 백제 최대 사찰로써 석탑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유구가 전해짐. 전형적인 백제식 가람배치 형식이 아닌 3탑 3금당 배치를 함.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석탑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목조건물의 건축기법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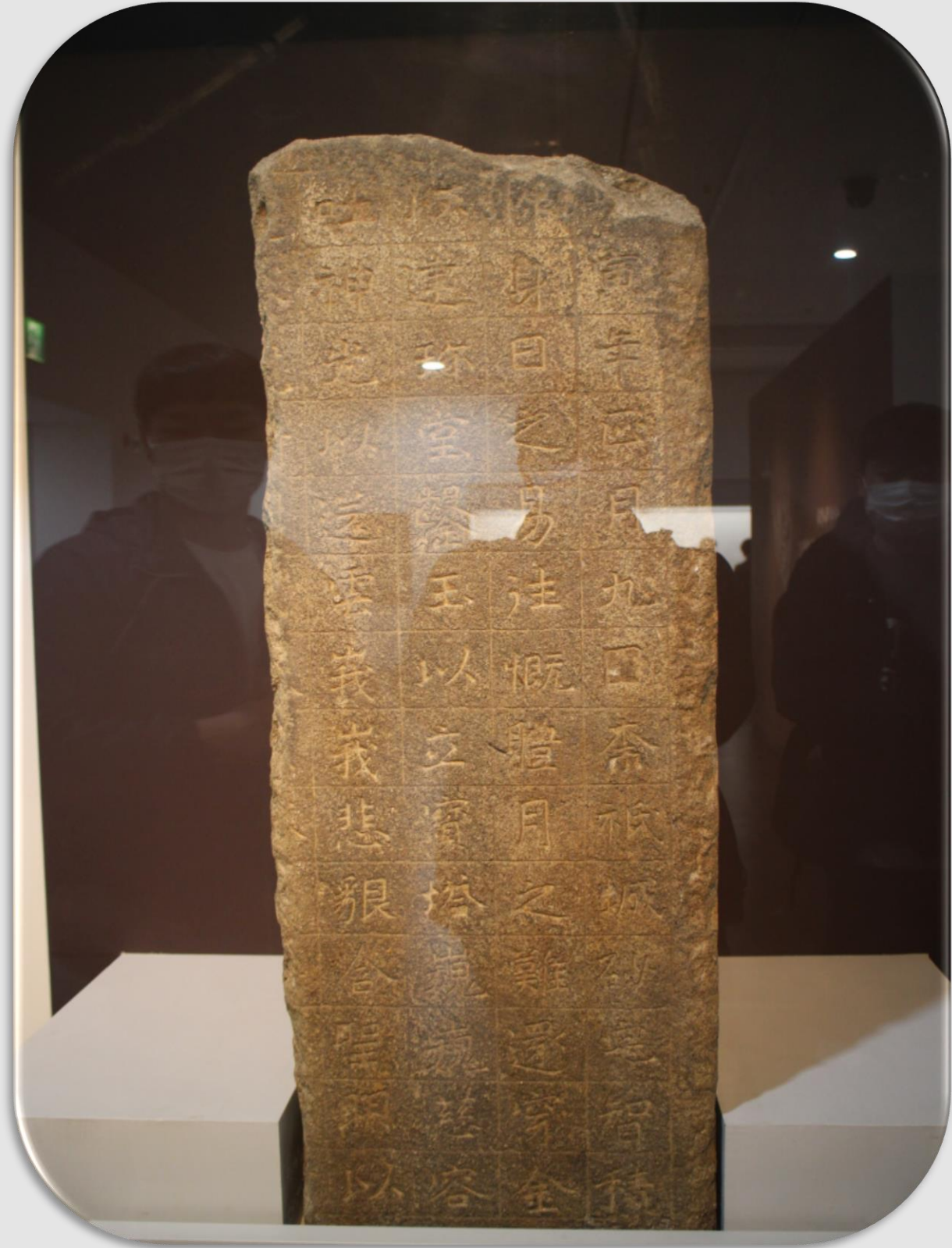






1929년 부여고적보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진 박물관.

충남 서부지역의 선사문화를 비롯하여 백제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함.











백제 마지막 도읍지의 산성.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 122년 동안 정치,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함.
백제 멸망 후에는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으로도
기능하였으며, 통일신라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산성으로 사용됨.





